“전국단위 동참” 백만원력 결집 신호탄

[현장] 제19교구본사 화엄사 백만원력 지역대회

조계종이 종단 현안 해결을 위해 불자 100만 명의 원력을 담은 대작불사에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0월 5일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에서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첫 지역행사를 열고, 종단 현안 해결을 위한 기금마련과 홍보활동을 펼쳤다.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100만 명의 사부대중이 발원, 기도, 보시의 실천을 위해 매일 100원을 모아 한국불교의 미래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모연된 기금은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 계룡대 영외법당 건립, 불교요양병원 건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행사가 열린 화엄사는 교구차원의 독자적인 승려복지와 화엄음악회 및 불교종립학교 지원 등 호남지역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활동을 통해 모범적 교구운영을 하고 있는 제19교구 본사다.

화엄사에 문을 연 ‘백만원력 결집불사’ 지역대회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명예 원로의원 명선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제19교구 화엄사 본말사 스님 200명 등 7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원행 스님은 법문을 통해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우리 종단과 한국불교의 밝은 희망을 세우는 첫 걸음”이라며 “불사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미래불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어서 시작하게 됐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스님은 이어 “종단의 예산은 대부분 경상비로 사용하기에 미래불교를 위한 특별한 불사는 기금을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법문에 앞서 덕문 스님은 대회사에서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의미를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들었다.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불자 한 사람의 원력과 마음이 합쳐지면, 한국불교를 변화 시킬 수 있다’는 말이었다”라며 “오늘 첫 결집법회

화엄사, 5000만원 기금으로 기탁
동화사 · 월정사 · 수덕사 등 동참
“대승원력보살 거듭날 것” 발원

를 통해 교구본사 입장에서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통해 진정으로 한국불교를 바꾸고자 하는 원력의 마음을 내 서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덕문 스님은 “최근 종단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다. 한국불교가 변하는 모습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집불사에 임하는 마음을 전했다.

이날 법회에는 화엄사 사부대중이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해졌다. 먼저 화엄사에서 마련한 기금 5000만원을 덕문 스님이 원행 스님에게 전달했고, 모든 참가자들은 휴대폰으로 ARS전화 3,000원씩 후원하며 힘을 보탰다.


백만원력 지역대회 화엄사 법회에 참석한 대중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ARS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화엄사는 이와 별도로 백만원력 기금 5000만원을 종단에 기탁하며 성공적인 불사를 기원했다.



화엄사는 백만원력 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불단에 모연된 저금통을 올리는 신도들.

특히 미래불교의 주인공인 초등학교 아이들이 직접 발우저금통에 모은 기금을 원행 스님에게 전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신도들도 100원짜리가 모인 발우저금통을 불전에 올리며, 한국불교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마하비라합창단 문화공연, 백만원력 결집불사 홍보동영상 상영, 대회사, 추진위원 위촉, 동참선언, 법어, 선언문 낭독, 발원문 낭독이 진행됐다.

화엄사는 제19교구에서 구체적인 결집불사 추진을 위해 화엄사 선재회 장길선 회장, 태안사 김영전, 한산사 문추자, 향일암 이영희 불자를 추진위원으로 위촉해 활동에 나선다.

행사 참가 대중은 백만원력 결집 선포식에 맞춰 선원문을 낭독하며 “우리는 대승 원력 보살로 거듭 나겠다. 보시 바라밀을 실천하겠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살겠다. 건강한 화합 공동체를 만들겠다. 부처님 도량을 잘 꾸미겠다”고 실천덕목을 다짐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미경(울산 도선암) 불자는 “행사에 참여해 보니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 결집불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한국불교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화엄사=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신행운동, 백만원력 결집 성공 열쇠”

[인터뷰] 백만원력결집위원장 금곡 스님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외면적으로 볼 때 특정 건립불사에 시선이 먼저 가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밑바탕을 이루는 신행운동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올린다든지, 108배를 한다든지 또는 경전을 독송한다든지, 이처럼 삶을 곧 생활불교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백만원력 결집불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백만원력결집위원회 위원장인 금곡 스님은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방점을 ‘신행’에 찍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선포식 당시 조계종이 △경주 열암곡 마애불 입불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 △불교요양병원 및 요양원 건립 △계룡대 육 · 해 · 공군 본부 영외법당이라는 대작불사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서 불자들의 풀뿌리 신행이 정착돼야 한다는 의미다.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모든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우리 손으로 불교를 변화시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고 매일 100원씩 모아서 이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불사를 ‘모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100원씩 1년을 모아도 3만 6500원입니다. 요즘 시대에 결코 큰돈은 아니죠. 그래서 단순히 모연보다는 불자들이 생활불교로 나아갈 수 있는 인연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금곡 스님은 종단의 백만원력 결집불사 선포 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가장 큰 변화로 불자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꼽았다. 실제 결집불사 선포 초기, 불자들의 신행보다는 대대적인 모연이 언론에 조명 받으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복지재단이나 공익법인, 국제구호 NGO 등 이미 다양한 단체가 있어 기부에 부담을 느낀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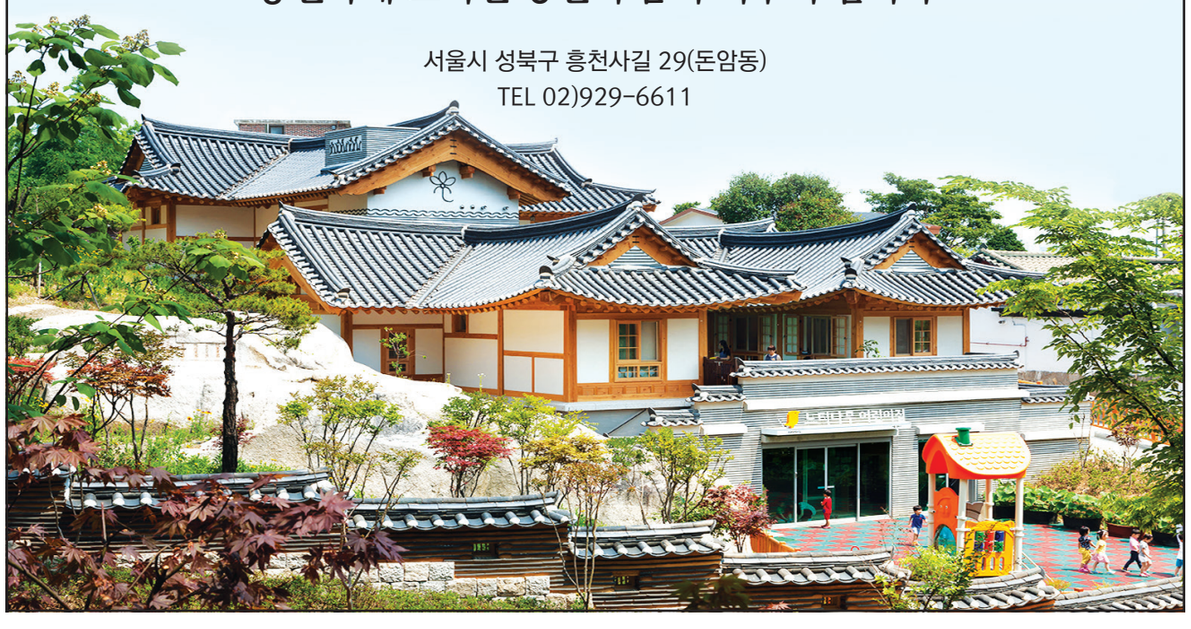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본래 취지는 모연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대형불사가 계획으로 잡혀 이 부분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납부하는 교구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이미 여러 단체에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 불자들도 쉽게 마음을 내기 어려웠죠. 하지만 최근 중앙종무기관 차원에서 전국 교구본사를 순회하고 백만원력 지역대회를 개최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곡 스님의 말처럼 최근 조계종은 제19교구 화엄사를 시작으로, 팔공총림 동화사, 제4교구본사 월정사 등을 순회하며 백만원력 지역대회에 동참했다. 각 대회마다 수백여 명의 불자들이 운집하고, 정성껏 모은 저금통을 기부하는 등 백만원력 결집에 힘을 보탰다. 모연보다 불자들의 신행증장에 담긴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렸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덕숭총림 수덕사와 제10교구본사 은해사도 지역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나머지 교구도 올해와 내년 상반기에 순회할 계획이다.

“우리가 매일 같이 부처님을 떠올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찾으려 노력한다면 삶을 살아가며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발심으로 시작해 곧 생활로 이어지고, 하루하루 습관이 된다면 〈반야심경〉의 구절처럼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백만원력은 이처럼 불자 개개인의 발심으로 완성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한 명이 아닌 백만 명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글=윤호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흥천사
사부대중일동
“흥천사에 오시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 집니다”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TEL 02)929-6611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천년관음기도도량
옥천암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지문길 1-38
www.okcheonam.com ☎ 02)395-4031

